

# 사회적 거리두기에 온라인 소비 급증

###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전년비 광주 51.4%·전남 68.4% 증가 광주·전남 운수소비 반토막...개소세 인하에 자동차 35.8% ↑

코로나19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 신용카드 온라인 사용액이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 운수 부문 소비는 반토막 났고, 학원·음식·숙박 등도 20%대 큰 하락폭을 보였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분석한 광주·전남 지역민 신한카드·하나카드 사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한 올 2월 신용카드 온라인 사용액 증가는 광주 51.4%·전남 68.4%로 집계됐다.

전남 증가율은 경남(70.4%)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고, 전국 평균(54.6%)을 훌쩍 뛰어 넘었다.

전남에 이어 강원(64.4%), 충남(62.7%), 인천(60.9%), 전북(60.7%), 세종(59.6%), 울산(54.6%), 충북(54.1%), 부산(54%)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광주(51.4%)는 전국에서 11번째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곳은 제주(32.6%), 서울(42.5%), 대구(45.1%) 등이었다.

지난 1월 온라인 사용액 증가율이 32.1%였던 전남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창궐한 2월 증가폭이 2배 넘게 뛰었다. 광주지역(1월 24.5%)도 마찬가지였다.

온라인 카드결제 비중은 늘었지만 광주 1.6%·전남 2.8% 등 지난 달 전반적인 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코로나19 여파로 둔화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여행 자제,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버스·항공 등 운수 부문 소비는 절반 이상 떨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3월 운수 부문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5.5%나 하락했다. 올해 들어 광주·전남 지역 운수 부문 카드 사용액은 1월 -15.1%→2월 -33.0%→3월 -55.5%로 감소폭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매출 부진은 서비스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 달 20%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폭을 보인 업종은 여가(-24.7%), 학원(-22.1%), 음식·숙박(-20.4%)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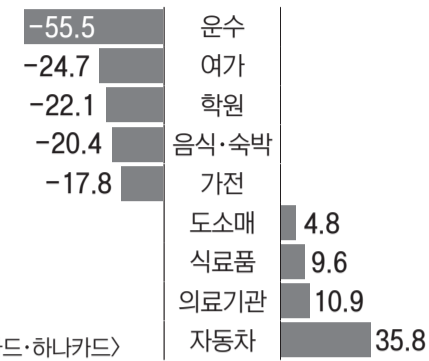
자영업자가 몰린 음식·숙박업의 경우 1

### 2월 시도별 신용카드 온라인 사용액 증가율

순위	지역	증가율(%)	순위	지역	증가율(%)
1	경남	70.4	10	부산	54
2	전남	68.4	11	광주	51.4
3	강원	64.4	12	경기	49.5
4	충남	62.7	13	경북	48.6
5	인천	60.9	14	대전	48.1
6	전북	60.7	15	대구	45.1
7	세종	59.6	16	서울	42.5
8	울산	54.6	17	제주	32.6
9	충북	54.1			

(자료: 신한카드·하나카드)

### 광주·전남 3월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감률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둔화됐으나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가 진정될 경우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중앙·지방정부의 내수진작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반면 사태가 장기화되면 음식료품, 위생용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파악한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22.77 (+33.76) ↑ 금리(국고채 3년) 1.026 (+0.008)
- ↑ 코스닥 646.86 (+13.90) ↓ 환율(USD) 1226.20 (-9.30)

## 개인채무자 대출원금 상환 미뤄준다

### 금융위, 코로나 피해자 지원 내일부터 신청...1년간 유예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등은 최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오는 29일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원금 상환을 가장 1년간 미뤄주는 것으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은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신청할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하는 경우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았을 때이며,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3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 채무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니라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곳이면 해당 금융회사에, 2곳 이상이면 신복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상환유예 특례는 은행·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캐피탈사 등 전금융권에 29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카카오펌크, 케이뱅크의 경우 5월 7일부터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지역 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각 은행 등에 문의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은행,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 운영

### 관세법인 더블유와 협약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통관·관세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광주은행은 27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관세법인 더블유와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을 거래하는 수출입기업은 관세법인 더블유의 전문 관세사로부터 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 관세·FTA·통관·물류에 대한 일반적인

컨설팅과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는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현성 외환영업부장은 "관세법인 더블유와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을 믿고 거래해주는 고객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고, 고객과 동행하기 위한 질 좋은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상의, 광주 FTA활용지원센터 지원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5월부터 광주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지역 FTA활용지원센터는 광주상의와 산업통상자원부, 광주시가 공동으로 2011년 2월 개소해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역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초교육부터 전문상담실 운영, 해외시장 진출지원, 증명발급, 맞춤형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제3차 확인사업,

FTA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12개 분야 42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까다로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사가 직접 컨설팅 해주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2명의 전문 관세사를 상주시켜 원산지관리, 사후검증대응 등 무료 상담과 현장방문 컨설팅, 산단 FTA One-Stop 상담창구 운영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 농촌 생활환경 개선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 시급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

농촌 거주자와 도시민 절반 이상은 농촌 생활환경에서 복지·의료 분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70%)은 농촌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 보고서에 담겼다.

연구원이 농촌 거주자 308명과 도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 우선순위 1-2위는 '복지'와 '의료'로 나타났다.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농촌 거주자 34.9%·도시민 30%로 나타났고 ▲의료(농촌거주자 23%·도시민 26.8%) ▲정주생활(농촌거주자 16.7%·도시민 14.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임직원들이 27일 지역본부 구내식당에서 '오리데이' (5월2일)를 앞두고 소비 촉진 행사를 열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5월2일은 '오리데이'... "5월 가족과 함께 몸에 좋은 오리 드세요"

### 농협 전남본부 소비 촉진 나서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이 급감하면서 오리고기 가격도 반토막 났다.

27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오리고기 산지가격은 kg당 131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75원)보다 48.7% 하락했다.

이는 평년 가격 1617원 보다도 21% 하

락한 가격이다. 냉동 오리고기 재고 물량도 올 1월 503만수, 2월 560만수, 3월 630만수 등 계속 쌓이는 실정이다.

전남본부는 '오리데이'로 알려진 5월2일을 앞두고 오리고기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7일에는 무안군 남악리 지역본부 구내 식당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리데이! 우리 오리고기 먹는 날' 행사를 열었다.

전남본부 측은 "오리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비타민A 함량 1위, 불포화지방산 함량 1위로 꼽히는 등 대표적 면역력 건강식품"이라며 "어린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에 오리백숙, 오리브로콜리떡볶이, 오리단 호박찜, 오리고기무쌈말이, 오리오븐구이 등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